

전주시, 내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김승수 시장과 간부공무원 국회에서 국가예산 확보 활동... 11개 중점관리사업 적극 건의

전주시가 주요 현안사업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간부공무원들은 6일 국회를 방문해 전복연고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국가예산심사 단계부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등 2018년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국가예산 확보활동 이후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국가예산 확보 대응방안과 전주시의 주요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이날 중점 건의한 사업은 △전북지역 장애인 능력개발 인프라 구축 △NPS 복지플러스센터 건립 △전북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국립 보훈요양원 건립 △전주동물원 멸종위기종 보전환경조성 △전주역사 전면개선 △국도1호선 진입로 당(삼례교) 보수보강 △국립 문화재 연구소 건립 △독립영화의 집 건립 △세계무형유산포럼 개최 △덕진경찰서 덕진지구대 신축사업 등 11개 사

업이다. 시는 이 사업들을 국회예산심사단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국회 예산 심사단계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예산 확보 활동과 전방위적 대응을 위한 간부공무원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백재현 국회 예결위원장과 김수홍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김광수 국회의원, 정동영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 등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복연고 국회의원을 차례로 방문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적극 피력했다. 또,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향후 이들 11개 중점관리사업의 예산증액은 물론, 기 확보된 국가 예산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상임 위 및 예결위 위원들과 공조를 견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예산심사 진행 상황을 종합 분석하고 즉각적인 전략



김승수 전주시장은 백재현 국회 예결위원장과 김수홍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김광수 의원, 정동영 의원, 정운천 의원 등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복연고 국회의원을 차례로 방문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적극 피력했다.

수정과 함께 쟁점사업에 대한 논리보강 등 지속적 설득을 통해 보다 많은 국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막바지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내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상임위별 소위원회 진행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군산해경, 기획수사 성과 뚜렷

출범 100일... 사건처리 155건 전년대비 96% 증가

정부조직 개편으로 독립 외청의 시대를 다시 맞이한 해경이 출범 100일을 지나면서 뚜렷한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정부조직개편 후인 7월 26일~11월 3일까지 발생 사건과 인지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55건(형법법 67건, 특별법 위반 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건(형법법 35, 특별법 위반 44건)에 비해 96%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경청 출범 후 조직의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혁신 100일 프로젝트와 정보·수사 기능 활성화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달라진 점은 해경의 기획수사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다. 해경청 부활 이후 군산해경은 수사과 외사계로 운영되던 수사과를 수사, 형사, 과학수사계로 나눠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또 정보, 외사,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정보과를 신설해 양질의 정책 정보와 범죄정보 입수에 주력

하고 있다.

해경은 보강된 수사 인력을 바탕으로 선박용 기름을 육상용 병커C유로 둔갑시켜 전국적으로 팔아온 일당을 적발했고 새만금 공사현장 하도급 비리도 파헤쳐 공책사장의 안정적 진행을 이끌었다.

이외에도 선박 안전과 관련한 기획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새로 신설한 과학수사계(KCSD) 활동 역시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 해상에서 발견된 번사지는 가장 처음 도착한 과학수사계 현장 감식으로 사건이 처리된다.

사후 경직과 부패 정도에 따라 사망추정시간을 확인하고 다양한 감식기법을 활용해 사망원인을 밝혀내는데 한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채광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독립 외청 후 수사 인력 보강과 경찰관 사기 증진 역시 업무성과에 한몫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김판곤 기자

김판곤 이적혐의, 항소심도 무죄

시민단체 '군산평화통일여는사람들' 김판곤 사무국장이 이적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강두례 부장판사)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무죄를 유지했다.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2010년 11월 까지 각종 집회와 언론 기고물, 카탈로그,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 군사연습 반대, 미국 대북정책 폐기, 미군 철수, 천안함 진실 은폐 등을 주장하고 카페 자료실에 북한 관련 문서나 책자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김씨의 행위가 이적 동조에 해당하고 보관하고 있는 문서나 자료들이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이적 선전 동조의 경우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도 북한 관련 문건이긴 하지만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서류와 책자를 소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민 기자

선미촌 뼈대 '전주 업사이클센터' 조성 착수

시,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2018년 말까지 건립

전주시가 섬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의 재생사업을 이끌어갈 업사이클센터 조성을 본격화한다.

시는 최근 '전주 업사이클센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 국비 24억원 등 총 48억원을 들여 선미촌 내 매입공간을 활용해 업사이클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입혀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센터가 설치되면, 폐기물의 자원화를 통해 전주가 업사이클산업 선도하고 핸드메이드티(수제작 도시)로서의 위상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업사이클센터가 설치되면서 선미촌을 문화와 예술, 인권의 공간으로 바꾸는 문화재생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는 업사이클센터에 지역특색을 살린 폐자원을 활용한 제품 제작·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업사이클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 공간도 함께 조성기로 했다.

시가 이처럼 업사이클센터 조성에 나선 것은 폐자원의 단순 재활용 차이를 넘어 가치를 높이는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 산업을 새로운 성장원천으로 삼아 미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 재활용 선도도시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전주 업사이클센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전주 업사이클센터의 조성 방향을 버려진 자원과 버려진 거리, 버려진 스토리를 다시 보는 활기찬 업사이클센터로 결정했다.

또한, '지역 업사이클 생태계 조성'을 위한 허브역할을 운역 전략모델로 정하고, 업사이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재 공급 인프라 구축 △창업 보육 지원 △제품 홍보 마케팅 등을 추진기로 했다. 또, 업사이클 문화 조성을 위한 세미나·홍보 전시 투어 △교육 체험 기능도 보강기로 했다.

업사이클센터가 조성되면, 오는

2025년까지 약 60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26명의 간접 고용효과와 20억원의 매출 등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오는 2025년에는 폐기물 소각이 연간 200톤 감소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향후 사업추진 기간 중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 수립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사업 및 운영방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20~30년 전부터 업사이클 관련 산업이 활성화 돼있으나, 국내는 관련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상황이다. 시는 업사이클센터를 기반으로 창업교육과 지원, 홍보 등 업사이클 관련 산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향후 업사이클 센터를 거점으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업사이클제품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관광 상품 개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야간 상습무단외출 보호관찰 10대 '소년원행'

야간의출제함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 10대가 이에 불응하고 상습적으로 야간에 무단외출해 소년원에 가게 됐다.

전주소년법지원센터는 6일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A(18)군을 구인하고 소년원에 유치시켰다고 밝혔다.

A군은 특수절도, 협박, 폭력, 사기 등 9차례의 범행 전력이 있으며 지난

4월 폭력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장기 보호관찰 2년과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의출제한 4개월, 주변 비행청소년들과 어울리지 말 것 등을 부과 받았었다.

그러나 무단으로 야간 외출을 하고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다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돼 광주소년원에 유치됐다. /이상민 기자

반부패비리기획수사 206명검거

전북경찰청은 6일 3개월간 진행했던 반부패비리 기획수사' 통해 148건의 비리를 적발하고 20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갑질횡포 164명, 국책사업비리 36명, 지역조합 비리 6명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검거사례로는 국가 보조사업과 관련해 보조사업자 선정 대가로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3명을 입건하고 그 중 한명을 구속했다. 또한 지자체 발주 공사와 관련해 공사 편의 등을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2,797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등 5명을 검거했다. /이상민 기자

전주남초 명예경찰 힐링 캠프

완산경찰서는 지난 4일 전주 남초등학교 명예경찰 소년단 25명과 임실 119안전체험관과 치즈 테마파크에서 힐링 캠프를 다녀왔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캠프는 한 학기 동안 등·하교 길 캠페인, 교내 순찰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또래 자립이로써 열심히 활동한 소년단원들을 격려하고, 학교 전담 경찰관들과 유대감을 형성하여 남은 활동 기간동안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오전 임실 119 안전 체험관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임실 치즈테마파크에서 함께 치즈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